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5

“돌 던지기를 멈추는 것이다.”



마음열기

나의 선택은?

“재는 왜 그렇게 못해?” vs “저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

“원래 성격이 이상한 거 아냐?” vs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까?”

“실력도 없는데 왜 저 자리에 있어?” vs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다들 재 싫어하지 않아?” vs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 위 선택 중 당신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누군가 쉽게 하는 말로 인해 상처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 최근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 마음은 어땠나요?

☞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과 그렇지 않은 말이나 행동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친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 사람은 왜 종종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 상처를 주고 받은 경험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더 가까워진 적이 있나요?

☞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요한복음 8:2-11

2.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 그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4.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7.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8.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9.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10.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11.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5-6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7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돌'을 쥐고 있나요? (정죄, 우울감, 참을성 없는 말, 분노, 사랑 없음 등) 그 돌을 다른 사람에게 던진 적이 있는가, 혹은 던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않은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내가 쥐고 있는 돌 중에서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글을 읽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 살 먹은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두 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루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던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필립안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



적용과 결단

사회, 학교, 교회, 직장 그 어디를 보아도 '안쪽'에 소수 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집단은 대개 공식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별명, 그들만의 농담, 특별 행사 등 미묘한 부분에서 누가 그 집단에 소속 되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C.S 루이스는 [안쪽 고리 (The Inner Ring)]라는 글에서 "인생의 가장 지배적인 요소는 가장 안쪽 고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만 앉으면 더 깊은 안쪽 고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안쪽 고리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대놓고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안쪽 고리에 넣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서 더욱 안쪽 고리를 갈망하며 그것

을 쫓아갑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가며 그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안에 담을 쌓아갑니다. 담을 쌓고 '우리'와 '그들'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등을 돌린채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친구가 많으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안에 인기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종종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림을 받거나 소외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소외를 주동하는 무리에 내가 끼어 있다면 또한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나와 친하지 않다고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번 주는 그런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 아니 한번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도